

노인전문요양시설 거주층의 복도 및 휴게홀 이용행태*

Using Behavior of Corridor and Lounge at the Residence Floor in Skilled Nur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 및 실내계획 전공
전임강사 이 민 아
교 수 유 옥 순

College of Human Ecology, Kunsan National University

Full Time Lecturer : Lee, Min-Ah

Professor : Ryu, Ok-S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facility planning to reduce elderly isolation and to improve their rehabilitation ability. Four researchers observed the using behavior of the elderly residents in the corridor and lounge of 5 facil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using rate of the lounge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rridor since most of the elderly were controlled by the staffs at the lounge. The facility could decrease the crowd of the lounge by arranging the sofa at the corridor-especially surrounding the atrium. The use rate in the lounge was very dependent on the time of the day, because its use was influenced mainly by daily schedule, and this resulted in it being largely inactive most of the time. A counter plan is needed to encourage natural interaction among the elderly. Individual or small group activities are required in addition to the regular programs. Since the furniture arrangements_(sofas and tables) at the corridor could induce elderly isolation and inactivity, various equipments should be arranged for the self-controlled activities. The indirect participation in the regular activities, which are usually conducted in the lounge,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he corridor so that the elderly could observe them at any places.

Corresponding Author: Min-Ah Lee, Departmen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College of Human Ecology, Kunsan National University
Miryong-dong, Kunsan 573-701, Korea Tel: 82-63-469-4625

* 이 논문은 2003년도 군산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주제어(Key Words): 노인전문요양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 for the Elderly), 노인시설 공용공간(Public Space of the Elderly Facility), 노인 공간이용행태(Space Using Behavior of the Elderly)

I. 서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중증의 질환노인이 장기간 생활하는 의료복지시설로,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활발한 지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 2월 현재 전국에 73개소의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다. 이는 2002년 12월 기준 전국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48개소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약 1년여 만에 25개소가, 그리고 비율로는 약 50%가 증가한 것으로, 향후 만성 노인성질환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부양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노인복지시설협회, 2004).

한편, 이러한 시설의 급격한 양적 증가는 질적인 측면, 특히 시설의 설비나 공간구성의 중요성을 간과시키기가 쉬운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단순한 수용의 의미를 넘어 쾌적한 주거환경, 사회참가활동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노인의 고립감을 해소시키고 재활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손수진, 1999). 특히 복도와 휴게홀은 거주실을 제외하고 입소노인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각종 치료 및 여가 프로그램과 오락, 산책 및 휴식, 식사, 수면 등의 다양한 이용을 보이며(양금석, 2002; 이응숙, 2003), 입소노인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복도와 휴게홀의 공간구성과 디자인 요소 측면에서 노인의 사회성 회복과 고립감 해소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나, 최근까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연구의 초점은 평면유형 분석이나 전체적인 공간구성 분류 및 위치분석, 혹은 공간 내의 무장애(Barrier-Free) 설비구성에 그치고 있으며, 시설 내 입소노인의 정서나 효과적인 재활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의 계획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연구는 그 대상을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입소노인으로 하기에는 조사환경의 구성상 어려운 점이 있어, 주로 시설 관계자로부터

얻은 정보자료나 답사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이로 인해 주 사용자인 입소노인들의 직접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거주층에서 생활하는 노인과 직원의 복도와 휴게홀 이용행태를 시간별로 관찰 조사하고 분석하여 시설의 공간구성 및 설비의 특성이 거주자의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적절한 요양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복도 및 휴게홀 공간계획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노인시설의 복도와 휴게홀의 개념

복도는 거주실과 공동공간을 연결하는 전이공간으로, 노인시설 내에서는 사람, 음식, 물품의 이동뿐 아니라 실내산책 및 배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휴식과 자연스런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다. 한편, 휴게홀은 복도 한쪽이 확장되어 만들어진 오락/휴게공간으로서 그 개수와 면적에 따라 데이룸, 라운지, 알코브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손수진, 1999; 이응숙, 2003).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노인시설 공간구성 측면에서 복도와 휴게홀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공간의 기능 측면에서의 개념으로, 이민아와 유옥순(2004), 최승자(2000)는 노인시설의 공간구성을 거주공간, 공용공간, 관리지원공간, 의료간호공간으로 구분하였고, 복도와 휴게홀은 식당이나 목욕실, 탈의실, 이미용실 등과 함께 공용공간에 포함시켰다. 김동규(1998)는 생활, 관리, 의료, 공급지원 부분으로 구분하고 생활부분은 다시 거주, 공용, 지역생활부분으로 분류하여 휴게홀과 비슷한 성격의 집회실, 오락실을 지역생활부분으로 포함시켰다. 둘

책은 공간의 소유 측면에서의 개념으로, 노인시설 공간구성을 공적공간, 준공적공간, 준사적공간, 사적공간 등으로 구분하였다. 공적공간과 준공적/준사적공간의 개념은 연구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준공적/준사적 공간을 거주부문 소그룹의 생활공간으로 본 이응숙(2003)과 손수진(1999)은 복도를 준공적 공간에, 휴게홀을 공적공간에 포함시킨 반면, 공적공간을 입소노인과 외부이용자에게 공유되는 영역으로 정의한 권순정(2002)은 복도를 준사적 공간, 휴게홀은 준공적 공간에 포함시켜, 현관, 로비 등의 공적공간과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도와 휴게홀을 기능적 측면에서 공용공간으로 정의하고, 두 공간 모두 개인 활동과 공동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소유적 측면에서 준공적/준사적 공간으로 정의하여 외부인과의 공유영역인 현관, 로비 등의 공적공간, 그리고 개인 거주실과 같은 사적공간과 구별하고자 한다.

2. 관련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노인의 공간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중 노인전문 요양시설의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대부분 시설 공간의 답사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다시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답사시간 동안 무작위로 관찰된 이용행동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경우(손수진, 1999)로, 주로 시설 관계자와의 인터뷰나 문서정보를 통해 자료보완을 하게 된다. 둘째로, 몇 개 시설을 선택하여 거주인의 주 활동시간에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각 공간의 이용행동을 기입한 뒤, 도면에 그 점유 장소를 표시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김동규, 1998; 류승수, 2001), 셋째는 몇몇 시설에서 건강, 연령, 일상생활 자유도 등에 따라 거주노인 7-8명씩을 선택하여 그들의 공간이용행동을 전일 관찰하는 방식이 있다(양금석, 2002; 이응숙, 2003). 본 연구에서는 공간의 전반적인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사례시설 거주층의 전체 노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15분 간격으로 이용행동과 장소 및 인원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손수진(1999)은 노인 간의 교류행위가 주로 공적공간과 반공적/반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공식적 프로그램보다는 비공식적인 접촉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유공간의 이용도를 높이고 사회적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적공간 → 반공적/반사적공간 → 사적공간의 흐름으로 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복도에는 알코브와 소파를 마련하여 소그룹 활동을 장려하고, 공용공간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영역을 부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그룹활동과 개인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 복도일 경우 복도 이용률이 가장 낮은 반면, 중정형이나 회랑형 복도의 이용률은 높게 나타났는데(김동규, 1998; 류승수, 2001; 양금석, 2002, 이응숙, 2003), 이는 복도가 길어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었다. 양금석(2002)은 복도가 단조롭게 구성되었을 경우 이용률이 낮아진다고 언급하면서 변화 있는 공간구성을 통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자율적인 생활을 전개할 수 있는 계획을 요구하였다. 한편, 김동규(1998)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 휴게홀은 시설 중간에 배치하고 그 용도를 다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이응숙(2003)은 대형 휴게홀이 집단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어 입소노인의 생활이 획일적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러 개의 휴게홀(혹은 담화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 시설은 전라북도 5개시(전주, 군산, 익산, 김제, 남원)에 소재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 5개소로 모두 2층 혹은 3층의 일체형 건물로 되어있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 18조에서는 무료노인전문요양 시설의 입소대상노인을 생활보장대상 노인, 혹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2003년 12월 현재 전라북도

시 지역에 소재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모두 무료 시설로서 7개소가 있으나(노인복지시설협회, 2003), 이 중 2개소는 설립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현 거주자가 정원에 미달되거나 거주자의 공간 이용행태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거주층의 복도 및 휴게홀의 이용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2003년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 사전답사를 통해 시설의 건축적 개요 및 직원, 입소노인의 일반적인 사항, 그리고 월간 및 일간 스케줄 표를 제공받았다. 본 조사를 위해 각 시설의 직원으로부터 평일 중 특별 행사(예: 경로잔치, 생일잔치, 기타 지역행사 및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연중 프로그램)가 없는 날을 추천받아 2004년 1월 12일부터 2월 9일까지 관찰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자를 포함한 다섯 명의 조사원이 노인(1)과 직원(1)의 주 활동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15분 간격으로 거주층의 복도와 휴게홀의 이용인원 및 이용행동, 그리고 행동이 일어난 세부장소를 기입하였다. 거주층이 2개 층 이상인 경우(C, E시설), 보다 많은 입소노인을 보유하고 있는 층을 조사하였고, 각 시설의 거주층 및 주요공간위치는 <표 1>과 같다. 복도 및 휴게홀에서의 관찰 및 분석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오전 10시부터 15분 간격으로 시간을 찍고, 그 옆에는 구체적인 행동(예: 소리 지르기, 이동하기, 수면, TV시청 등)과 행동이 발생한 장소(복도 혹은 휴게홀), 행동의 주체(노인 혹은 직원, 방문객 등), 그리고 각각의 행동을 한 인원수를 기입할 수 있도록 표를 작성 한 후, 조사원들이 시설의 복도와 휴게홀의 맡은 영역에 대기한 후, 정해진 매 15분 간

<표 1> 조사대상 시설의 거주층 및 주요공간위치

	거주층	식당	목욕실	물리치료실
A시설	2층*	1층	2층	1층
B시설	1층*	1층	1층	1층
C시설	2*, 3층	1층	2층	1층
D시설	2층*	1층	1, 2층	1층
E시설	1, 2층*	1, 2층	2층	1층

* 조사층

격으로 발생된 행동을 표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 중 하나인 이용빈도는 각 관찰 시각(예: 10시, 10시 15분, 10시 30분...등)에 복도 혹은 휴게홀에 존재한 거주노인 및 직원의 인원수가 되며, 이를 건수로 표시하였다²⁾. 한편, 15분 간격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 예를 들어 10시 13분이나 14분에 복도와 휴게홀을 이용한 거주자는 기입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장소의 이용행태의 변화를 추적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이용행동은 관찰 기입한 조사 자료와 선행연구(김동규, 1998; 류승수, 2001; 이응숙, 2003)를 바탕으로 하여 크게 담화, 무위, 배회/산책, 보조지원, 사무관리, 식사간식, 여가오락³⁾, 운동, 이동, 진료/치료의 10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위의 분류는 대체로 노인의 이용행동을 일컫지만, 간혹 노인과 직원이 같은 이용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사무관리의 경우 대부분 직원의 이용행동에 해당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의 건축적 개요(설립연도 및 대지면적, 연면적, 입지유형, 복도유형, 건물배치유형, 복도 및 휴게홀 면적 등)와 입소노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자유도⁴⁾, 그리고 시설의 하루일과를 정리하여 연구 분석의 기초가 되는 조사대상 시설의 일반적 현황을

- 1) 복도와 휴게홀에서는 직원과 노인의 상호작용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찰의 대상을 직접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과 직원 모두로 하였다.
- 2) 참고로 모든 행동의 관찰은 매 관찰시각에 1~2분 내로 끝내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표에 기입하지 못하는 경우 녹음기를 이용하여 추후 기입했음을 밝힌다.
- 3) TV 혹은 비디오시청의 경우 다소 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무위로 분류될 수도 있으나, 휴식시간에 여가를 즐긴다는 측면에서 여가오락으로 분류하였다(김동규, 이특구, 1997, p.37 참조).
- 4) 본 연구에서 생활자유도는 노인이 본인의지로 거동이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이응숙(2003)의 연구(생활자유도를 항상 누운 상태, 침대 위 기상가능, 거실 내 보행가능, 자유로운 상태로 분류)를 참조하여 거동불가능, 보행가능, 보행 및 활동가능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보행가능은 직원의 보조가 필요한 경우를 일컫는다.

파악하였다.

둘째, 복도 및 휴게홀에 배치되어 있는 가구 및 각종 소품 등과 같은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각 공간의 이용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셋째, 복도 및 휴게홀의 이용빈도와 이의 시간별 변화를 조사하여 이용실태를 분석한 뒤, 공간 이용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예상되는 공간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넷째, 복도 및 휴게홀에서의 다양한 이용행동과 이용행동의 시간별 변화를 조사 분석한 뒤, 각 공간

의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예상되는 공간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 노인전문요양시설 개요

1) 건축개요 및 입소노인상태

조사대상 노인전문요양시설 5개소의 건축개요와 입소노인상태를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대상시

<표 2> 조사대상 노인전문요양시설 개요(면적: m²)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E시설
시설도면					
시설허가	2002년	2001년	2003년	2002년	2001년
대지면적	5,555	9,720	3,841	3,140	- *
건축면적(연면적)	1,005.9(1,908.3)	1,636.2(2,041.2)	735(1,983.1)	871.4(1,705.9)	(1,824.1)
건물층수	3층	2층	3층	2층	2층
입지유형	도시근교형	전원형	도시근교형	전원형	도시근교형
복도유형	반중정형	중정형	회랑형	중복도형	이중복도형
복도면적**(비율***)	231.5(12.1%)	146.8(7.2%)	216.0(10.9%)	119.9(7.0%)	329.8(18.0%)
복도 폭**	2.7m	2.7m	3.0m	2.4m	2.7m
휴게홀 면적(비율***)	88.8(4.7%)	72.0(3.5%)	64.8(3.3%)	83.9(4.9%)	16.4(0.9%)
중정(개방중정)면적	70.0	198.0	126.0	-	56.1
입소정원(현원)****	50명(49명)	70명(70명)	50명(48명)	55명(53명)	72명(76명)
입소노인의 건강상태****	치매: 32.7% 중풍: 67.3%	치매: 67.1% 중풍: 32.9%	와상: 27.1% 치매: 33.3% 중풍: 33.3% 만성질환: 6.3%	치매: 83.0% 중풍: 17.0% 기타: 11.9%1)	치매: 68.4% 중풍: 19.7%
입소노인의 생활자유도****	거동불가능: 47.0% 보행가능: 26.5% 보행 및 활동가능: 26.5%	거동불가능: 37.2% 보행가능: 31.4% 보행 및 활동가능: 31.4%	거동불가능: 33.3% 보행가능: 56.3% 보행 및 활동가능: 14.6%	거동불가능: 41.5% 보행가능: 15.1% 보행 및 활동가능: 43.4%	거동불가능: 32.9% 보행가능: 67.1%

* 노인복지타운 내 노인복지관이 같은 대지에 있어 노인전문요양시설만의 정확한 대지면적이 나와 있지 않음

** 입소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층의 복도면적 및 폭을 계산하였음

*** 연면적 대비 복도 및 휴게홀 면적의 비율

**** 2003년 12월 기준

설은 모두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설립되었으며, 2층 혹은 3층 규모의 건물로 도시근교형 시설이 3개소, 전원형 시설이 2개소였다. 거주공간의 복도유형은 반중정형(중정형+중복도), 중정형, 회랑형, 중복도형, 그리고 이중복도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고, 복도면적은 이중복도형인 E시설이 약 330m²로 가장 넓었으며, 중복도형인 D시설이 약 120m²로 가장 좁았다. 이를 연면적 대비 비율로 보면, 역시 이중복도형인 E시설이 18.0%로 가장 높았다. 복도 폭은 모두 2.4~3.0m로 송대용(1998)이 언급했던 최소 폭 1.8m(중복도 2.7m)의 조건을 볼 때 중복도인 D시설의 폭이 30cm정도 부족한 것(2.4m)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의 복도 폭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휴게홀은 A-D시설이 거주층의 복도 한쪽에 대형으로 위치하여 그 면적이 64.8~88.8m²(약 20~27평)인 반면, E시설은 작은 휴게홀이 중앙 벽쪽에 위치하여 가장 좁은 휴게홀 면적(16.4m²)을 보였다. 연면적 대비 휴게홀 면적 비율은 평균 4% 정도를 보인 가운데, D시설이 4.9%로 가장 높았다.

2003년 12월 기준 조사대상 시설의 입소정원은 50~72명이며, 대부분의 시설이 정원을 채우거나 1-2명 정도 정원에 못 미치는 상태였고, E시설의 경우 단기보호시설 입소노인으로 인해 정원인 72명에서 4명이 초과한 76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었다.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보면, 치매와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이 대부분으로 B, D, E시설은 치매노인이 전체

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A시설은 중풍이 2/3를 차지하고 있었고, C시설은 와상노인과 치매,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이 각각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노인의 생활자유도별로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노인이 33%~47% 정도로 나타난 반면, 보조기구나 도움이 있을 경우, 혹은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한 노인은 약 53%~70%정도의 분포를 보였다.

2) 시설의 하루일과

조사대상 시설의 하루일과표를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대부분 점심식사를 기준으로 오전일과와 오후일과로 크게 구분되는데, 오전 9에서 10시 사이까지 아침식사와 청소/정리, 진료 등이 이루어지고 10시부터 점심식사 이전까지 목욕이나 산책, 운동, 물리치료 등이 행해지는데, E시설의 경우 계획된 정규 프로그램 활동이 오전 중에 시작하여 점심식사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특징이 있었다. 식사 후 A-D시설이 계획된 프로그램이나 레크리에이션을 시행하는 반면 E시설은 개별 물리치료와 휴식이 이루어지고, 대부분 5시를 전후해서 저녁식사가 시작되며, 식사 후에는 휴식에 들어간다.


2. 복도 및 휴게홀 구성요소

조사시설의 복도 및 휴게홀의 가구배치를 중심으로 공간구성요소를 알아보았다(표 4 참조). 먼저 복

<표 3> 조사대상 노인전문요양시설 하루일과표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A시설	기상/식사		세안	휴식	목욕/간식	휴식/운동/이동	식사	휴식	프로그램/오락	운동/이동	식사/휴식	
B시설	기상/세면		식사	건강체크	목욕/법회/진료/물리치료/산책/인지, 회상, 명상요법	식사/휴식	프로그램/레크리에이션/진료				식사/휴식	
C시설	기상/세면/명상	식사/양치		청소/운동	건강체크	진료/목욕/요리/체조/오락	식사/휴식	프로그램	휴식/개별운동/염불	식사/정리/양치	TV	
D시설	기상/세면/식사		라운딩/청소/정리	휴식/목욕/산책/물리치료			식사/휴식	프로그램/물리치료/휴식	식사/양치/휴식			
E시설	기상/세면/식사		목욕/청소/정리/진료	프로그램/물리치료/산책/운동/휴식			식사/휴식	물리치료/휴식/진료				식사/휴식

〈표 4〉 조사대상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복도 및 휴게실 공간구성요소

	복도				휴게실			
	사진	소파(위치)	테이블	기타(위치)	사진	소파(위치)	테이블	기타
A시설		X	X	모빌(천장) 그림(벽), 장식품(벽)		O (벽)	O	TV, 노래방기기, 공예작품
B시설		O (중정)	O	장식품(벽)		O (벽, 창)	O	TV, 노래방기기, 피아노, 모빌
C시설		O (회랑)	X	손운동기구(벽), 장식품(벽)		X	O	TV, 노래방기기, 모빌
D시설		O (벽)	X	운동기구(복도한쪽), 모빌(천장)		O (벽, 창)	O	TV, 노래방기기, 모빌, 그림
E시설		X	X	운동기구(복도한쪽), 그림(벽)		O (벽)	X	TV, 노래방기기

도는 B와 C시설의 경우 중정 혹은 회랑벽을 따라 연속 혹은 비연속적으로, 또 D시설의 경우 복도의 한쪽 벽에 비연속적으로 소파가 배치되어 있어, 노인들이 거주실에서 멀지 않은 복도의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직원 및 동료 노인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B시설은 복도에 소파와 함께 원형 테이블을 군데군데 배치하여 식사시에 이용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소파에 앉지 않더라도 테이블을 중심으로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복도의 벽과 천정에는 각종 소품과 그

림, 모빌 등이 장식되어 있었고, D와 E시설에는 복도 끝이나 한쪽 옆에 운동기구와 휠체어 등이 놓여 있었다. 한편, 크기가 작은 휴게실을 가진 E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A-D)의 휴게실에는 기본적으로 매트가 깔린 바닥에 넓은 좌식 테이블을 곳곳에 놓아두어, 노인들이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거나 기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중 C시설을 제외한 A, B, D시설은 벽이나 창쪽에 일렬로 소파를 배치하여 휴게실 내에서 노인들에게 입식과 좌식생활 모두 가능하게 하였다. 모든 시설이 동절기에는

복도와 휴게홀 바닥에 난방을 하여 노인들이 거주실에서 나와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기타 설비로서 모든 시설의 휴게홀에는 TV와 노래방 기기가 있었고, 이외에 피아노와 공예작품을 배치해 놓기도 하였으며, 또한 천정에 모빌을 매달거나 벽에 그림을 전시하기도 하였다. 이들 기기들은 생일잔치나 시설행사가 있을 시에 주로 이용되고 있었고, A시설의 경우 TV는 프로그램이나 오락시간 등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켜 놓았다.

3. 복도 및 휴게홀 이용 빈도

1) 이용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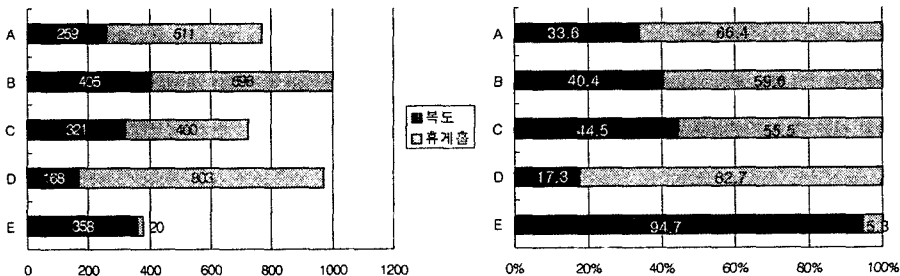
조사대상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복도 및 휴게홀의 이용 빈도는 <그림 1>과 같다. 조사대상 중 입소노인이 E시설(76명) 다음으로 많은 B시설(70명)과 관리차원에서 특별한 건강이상이가 없는 한 거주실로부터 나와 있도록 장려하는 D시설의 복도 및 휴게홀 이용빈도가 각각 1,003건과 9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E시설은 378건으로 가장 적은 이용건수를 보였는데, 이는 시설 운영 측면에서 계획된 프로그램 외에는 노인의 공용공간 내 사회활동을 장려하지 않은 점도 있으나 다른 시설에 비해 휴게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노인이 거주실에서 나와 머무를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장소별로 보면, E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복도보다 휴게홀의 이용률이 높았는데, 회랑벽을 둘러 소파가 설치되어 있는 C시설의 복도이용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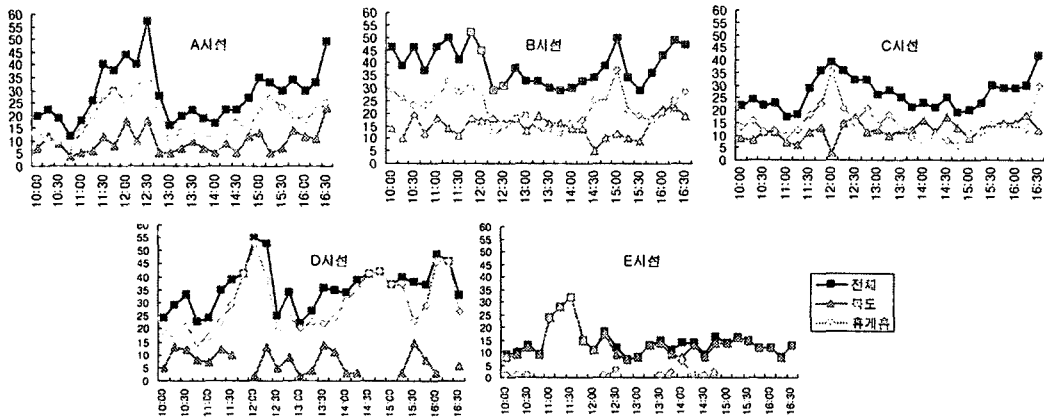
44.5%로 휴게홀 이용률과 큰 차이가 없었고, 중정벽을 둘러 마찬가지로 소파가 배치된 B시설의 복도이용률도 40.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복도의 D시설은 복도 벽을 따라 소파가 설치되어 있으나 복도이용률은 17.3%에 그치고 있으며, 중정이 있으나 복도의 일부분이 중복도로 되어있는 A시설의 복도 이용률도 33.6%로 나타나, 중복도형의 복도 이용률이 낮다는 류승수(2001), 양금석(2002)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복도이용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만족시키는 경우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첫째는 소파배치로서 복도 벽을 따라 소파가 배치되어 있을 경우(B, C, D시설)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복도 이용이 많으며, 둘째는 다른 공간을 관찰할 수 있는 개방형 복도유형, 즉, 회랑형이나 중정형 복도의(A, B, C시설) 유리벽을 통해 다른 복도공간과 휴게홀이 보일 경우 복도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중 이용빈도가 낮은 E시설은 작은 휴게홀과 넓은 복도면적으로 인해 복도의 이용률이 94.7%로 월등히 높았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노인들이 난방이 되는 복도의 바닥에 앉아 생활하고 있었다.

2) 시간별 이용빈도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 15분 간격으로 관찰조사한 시설의 장소별 이용빈도의 변화는 <그림 2>와 같다. A와 D시설은 식사와 프로그램시간을 중심으로 이용 빈도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는데, 점심과 저녁식사, 그리고 오후 14-15시경에 시작되는 정규



<그림 1> 복도 및 휴게홀 이용빈도(왼쪽, 건수)와 이용비율(오른쪽, %)



〈그림 2〉 시간별 복도 및 휴게홀 이용빈도 변화

프로그램시간에 이용이 급증하였다. 이는 중복도를 가지고 있는 두 시설 모두 복도보다는 휴게홀을 중심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휴게홀의 특성상, 노인들의 자연스런 교제보다는 시설 내 단순한 일과표에 따라 이용빈도가 좌우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중복도 시설에서 휴게홀 이용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노인들이 선택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단체 활동 보다는 소그룹 중심활동을 유도하는 등, 입소노인간 관계 및 직원과 노인 간의 대면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권장된다. 한편, 휴게홀 이용이 거의 없는 이중복도형의 E시설은 정규프로그램이 시작되는 11시경에 복도공간의 이용빈도가 급증했고, 점심식사 후 오후시간 휴게홀 이용이 약간 증가했을 뿐, 그 외 시간에는 공간이용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다⁵⁾. 이중복도는 휴게홀이 작고 복도 형태가 단순할 경우 이용빈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넓은 복도면적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여 노인들의 복도 내 활동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B와 C시설은 전체적으로 시간별 이용빈도에 급격한 차이는 없었는데, 이는 입소노인들이 거주실로부터 나오면 바로 보이는 복도에 자리를 잡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 가구 배치(소파/테이블 등)가 영향을 준 것이라 사료된다. 즉, 휴게홀에서는 여전히 일과표에 의한 활동으로 이용빈도의 차이가 다소 나타나고, 있으나 노인들이 복도에서도 휴게홀

활동을 구경하거나 휴식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소파를 배치하여 휴게홀의 집중이용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B시설의 경우 복도공간의 사용에 있어서 시간별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휴게홀은 오전시간에 실내체조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이용이 활발해지고, 점심식사 시간에 독립활동이 가능한 몇몇 노인들(약 15명 정도)이 식당으로 이동을 하면서 휴게홀 이용이 다소 감소하여 복도이용건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다가 오후 3시경에 정규 프로그램 및 간식시간으로 인해 휴게홀 이용이 급증한 후 다시 감소하게 된다. 한편, C시설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시종일관 복도와 휴게홀의 이용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B시설과 달리 복도에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사시간에 휴게홀의 이용이 급증했다가 식사 직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오후에 정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나 참여가 저조하였고, 개별 프로그램은 주로 각 거주실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기 때

5) 휴게홀이나 복도를 식사겸용 공간으로 하는 시설은 A, B, C, D 시설이었고, E시설은 거주층 끝에 위치한 식당을 이용하였다.
6) E시설의 프로그램은 복도를 이용해서 실시하는 요가프로그램과 복도 끝 식당을 이용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조사당일에는 요가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문에 오후 시간동안 복도나 휴게홀 이용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4. 복도 및 휴게홀 이용행동

1) 이용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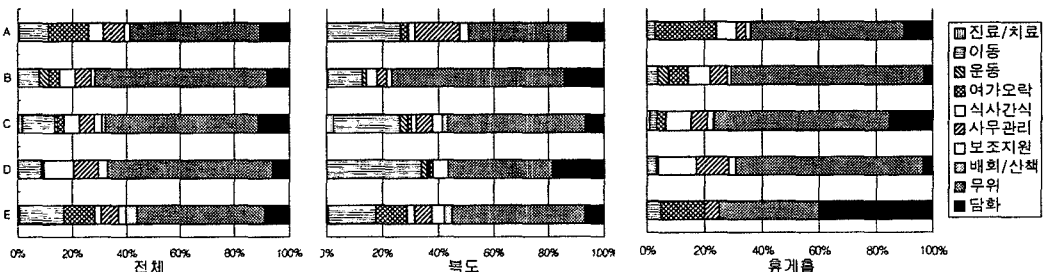
시설별로 복도 및 휴게홀에서의 이용행동을 알아보았다(그림 3 참조). 모든 시설에서 무위행동이 전체의 약 48%~64%를 차지하여, 복도나 휴게홀에서 수면을 취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바라본다거나, 혹은 무심코 창밖을 구경하는 등의 행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B시설의 복도 및 휴게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무위행동을 나타냈다(63.8%). 시설의 관리차원에서, 혹은 입소노인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 거주실보다는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권유된다(손수진, 1999)는 측면에서 비록 무위행동이라 해도 어느 공간에서나 동료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을 구경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을 배려하고, 더 나아가 무위행동을 약간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 정규 프로그램 활동 외에 복도와 휴게홀 내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한 설비구성이 요구된다. 즉, 개인활동 혹은 소그룹 활동을 위해 치매예방 및 작업치료 설비(예: 음식물 다듬기, 손가락 관절치료 놀이기구)나 운동기구 등의 설비를 배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하루 종일 TV를 켜 놓아 TV를 시청하는 노인들이 많았던 A시설은 무위행동 외에 여가오락(14.7%)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전체적으로 입소노인

의 복도 및 휴게홀 이용빈도가 낮은 E시설은 여가오락(11.4%)과 이동(16.1%) 비율이 다른 시설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복도와 휴게홀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공간 본래의 목적 이외에는 그다지 이용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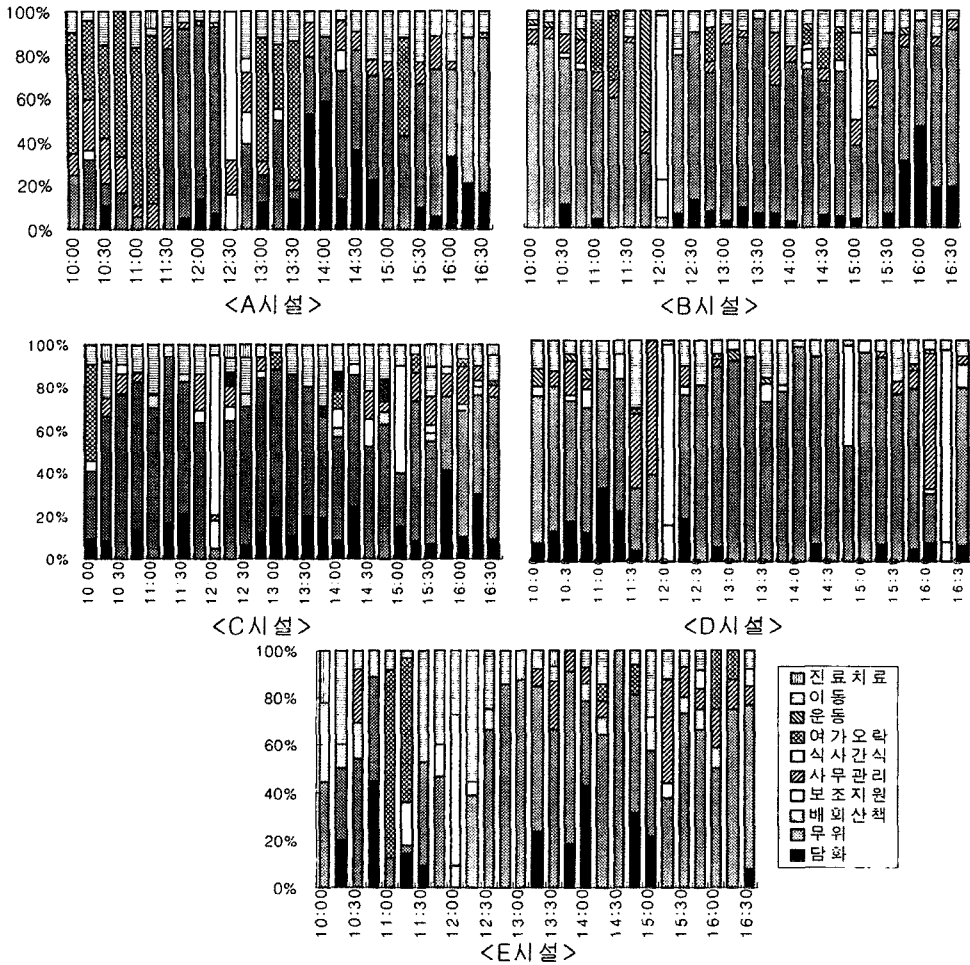
장소별로 살펴보면 복도와 휴게홀 모두에서 무위행동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복도보다는 휴게홀에서의 무위행동이 더 많은 편이었다. 한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E시설의 휴게홀에서는 무위보다 입소노인들 간의 혹은 노인과 직원간의 담화가 더 많았고(40.0%), 복도는 가구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나 시설 프로그램 시 복도바닥을 이용하고, 평상시에 노인들이 각자의 거주실과 연결되어 있는 복도에 나와 앉아 교제를 하고 다른 시설에 비해 여가오락 공간으로서의 이용이 많았다(11.2%). 중복도를 가지고 있는 A와 D시설의 복도에서 이동행동이 다른 시설에 비해 더 많았으며(각각 26.3%, 33.9%), 직원들의 사무관리는 A시설의 경우 복도공간에서(16.2%), D시설의 경우 휴게홀에서(11.3%)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중복도가 있는 경우 간호사실의 위치와 복도 혹은 휴게홀과의 근접정도가 직원들의 행동 범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 시간별 이용행동

각 이용행동의 시간별 변화를 알아보았다(그림 4 참조). 대부분의 시설에서 식사나 간식시간, 그리고 시설 프로그램 시간을 제외하고 특별한 변화 없이 무위행동이 이용행동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3> 복도 및 휴게홀 이용행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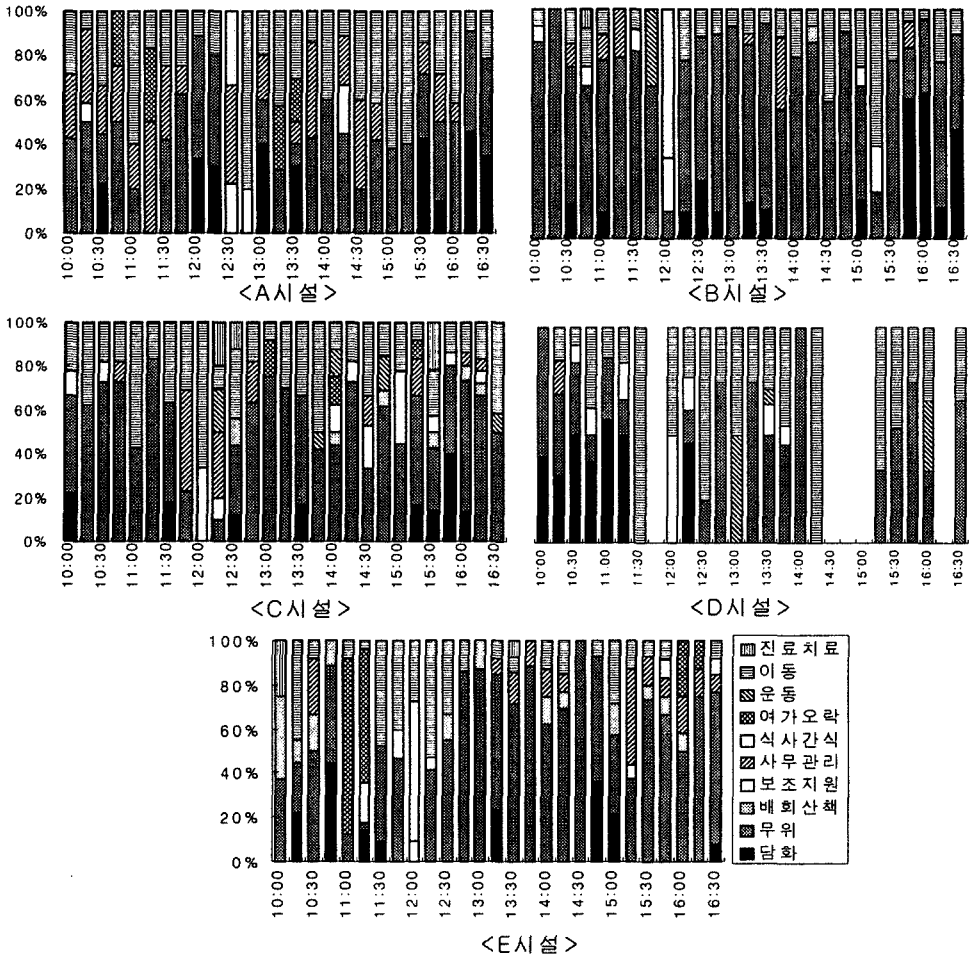


<그림 4> 복도 및 휴게홀 이용행동 비율의 시간별 변화

A시설에서 오전시간 여가오락의 비율이 높은 것은 대부분 노인이 TV를 시청하고 있었기 때문이나 오후에는 식사직후 1시간 정도와 프로그램 시간을 제외하고 여가오락 활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대신, 노인들 간의 담화행동이 여러 번 관찰되었다. 또한 식사 직전 거주실에서 나와 식사대기 중인 노인들의 무위행동이 식사 전까지 1시간 정도 계속되어 지루해보였다. B시설의 경우, 오전의 체조프로그램과 식사 직전 실내운동으로 인해 오전시간 한때 운동/체조의 비율이 급증하는 시간이 있으며, 다른 시

결과 마찬가지로 오후 간식시간 이후 담화행동이 많아 교체활동은 오전보다 오후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E시설은 오전시간(11시 정도)에 정규 프로그램으로 인한 여가오락과 식사 전후의 이동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장소별로는(그림 5, 6 참조), 휴게홀의 경우 무위행동이 대부분이며, 그 외의 행동은 하루 일과에 따라 식사 및 여가오락 등이 시행되는 등 시간별로 이용행동이 구분되는 경향이였다. 중복도가 있는 A와 D시설의 무위행동은 주로 휴게홀에서 식사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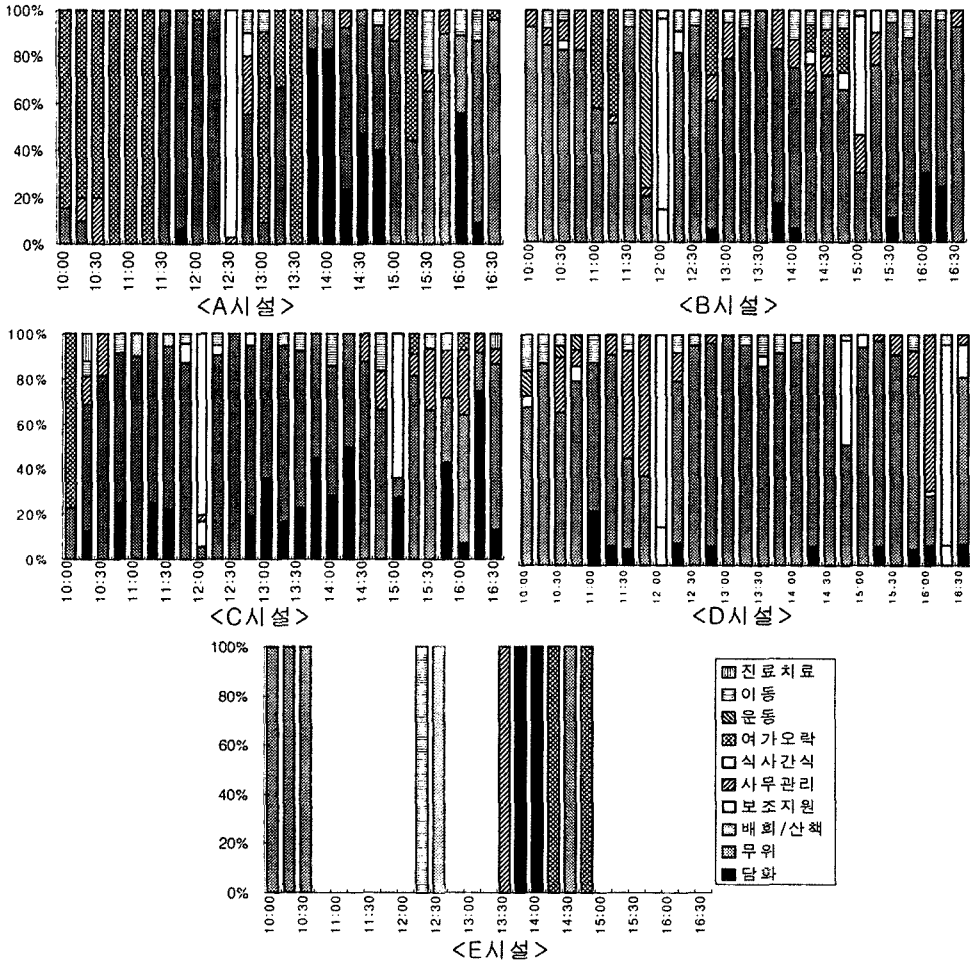
<그림 5> 복도 이용행동 비율의 시간별 변화

다리는 동안 집중되어 나타났는데, 다른 시설의 경우, 휴게홀 내에서 무위행동이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D시설은 오히려 증가하여 이에 대한 시설 내 활동프로그램 및 공간시설설비 대책이 요구되었다. 중정(혹은 개방중정)이 있는 A, B, C시설은 담화행동에 있어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담화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였고, 그러한 현상은 B시설의 경우 복도에, A와 C시설은 휴게홀에서 나타났다. 이는 아래층이 보이는 개방중정의 회랑벽(C시설)이나 소파가 없는 복도(A시설) 보다

는 중정이 보이는 벽의 복도에 배치된 소파(B시설)가 좀더 안정감을 가져와 노인들 간의 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E시설의 휴게홀은 자주 이용되지 않았으나 점심식사 이후 입소노인들의 담화와 여가오락이 주로 이루어졌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복도 및 휴게홀



<그림 6> 휴게홀 이용행동 비율의 시간별 변화

이용행태를 관찰 조사하여 노인의 고립감 해소 및 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공간계획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시설 5개소는 모두 최근 3년 이내에 설립된 시설로, 다양한 입지형태와 복도유형(반중정형, 중정형, 회랑형, 중복도형, 이중복도형)을 보였으며, 입소노인은 대부분 치매와 중풍을 앓고 있었고, 각 시설별로 과반수이상의 입소노인이 보행이 가능하였다. 각 시설의 일과는 점심식사를 기준으로 오

전에 목욕, 산책, 운동 등이 행해지며, 정구프로그램 활동을 오전 혹은 오후시간에 시행하고 있었다.

2. 공간 이용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구성요소는 크게 복도와 휴게홀에 소파와 테이블이 배치되었는지의 여부로 각 시설들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으며, 그 외 운동기구, 장식품, 모빌 등이 복도에, 그리고 TV, 노래방 기기 등이 휴게홀에 공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3. 이용빈도에 있어서 활동시간(10시~16시 30분)에는 대부분 노인들이 대형 휴게홀에 모여 직원들

의 관리를 받고 있어 복도보다는 휴게홀 이용률이 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중복도형과 달리 다른 공간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중정형 혹은 회랑형 복도에 소파를 배치한 경우, 복도와 휴게홀 이용률에 큰 차이가 없어 휴게홀의 혼잡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휴게홀은 복도와 달리 정규 프로그램과 일과표에 따라 시간별로 이용률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나 사전 계획된 활동 외의 시간을 위해 개인 혹은 소그룹 활동을 위한 공간이나 설비 마련, 그리고 자연스런 교제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는데, 특히 복도 이용률이 낮은 중복도형 시설의 휴게홀 용도를 다양화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4. 이용행동에 있어서 무위행동이 전체 이용행동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이용이 많은 휴게홀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으며, 몇몇 시설에서는 식사 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지속되다보니 무위행동 역시 지나치게 길어져 식사 전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복도에 소파와 함께 작은 테이블이 있을 경우 식사를 할 수 있어 식사 시간에 휴게홀의 혼잡을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 복도의 소파배치는 무위행동을 더욱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어 적절한 활동설비가 요구되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복도 및 휴게홀 공간계획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체적으로 휴게홀에서 정규 프로그램 시간 외에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자극요소를 구성해 놓는 것(예: 고무찰흙, 블록, 성냥개비 등 각종 작업치료 및 손가락 관절운동을 위한 도구)이 권장된다. 특히, 대부분의 활동이 집중되는 중복도형 시설의 휴게홀은 위와 같은 요소를 반드시 구비하여 입소노인의 자율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증 질환 노인의 요양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람직한 휴게홀의 형태는 여러 개의 소그룹 알코브형이 가장 적절하다(손수진, 1999)고 보고 있지만 무료요양 시설에서는 예산이나 행정상의 문제 등으로 대형 휴게홀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형 휴게홀에서 노인들의 획일적인 생활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직원의 보조 없이 어느 정도의 관찰만

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개인 활동 혹은 소그룹 활동을 위해 작업치료 놀이나 운동기구 등의 설비를 휴게홀 벽 쪽으로 배치하거나, 바닥에 놓여있는 좌식 테이블의 모양(장방형, 원형 등)과 배치방법(일렬형, 병렬형, 자유형 등)을 수시로 변화시켜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2. 휴게홀이 단체 활동과 소그룹활동 및 개인 활동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면, 복도는 실내산책과 운동, 놀이치료 등의 개인 활동을 위주로 하되 노인 간의 자연스런 담화 및 교제, 그리고 휴게홀에서의 단체 활동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한다. 적절한 요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복도에의 소파배치가 불가피하나, 단지 앉을 장소만을 마련해 놓는 것은 오히려 노인의 무위행동을 유발하여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파와 함께 스스로 조절 가능한 활동설비나 오락설비 등의 배치가 필요하다. 특히, 이중복도형의 경우 넓은 복도면적을 이용, 단순한 복도형태를 다용도로 구성하여 노인들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유발시키는 것이 좋다.

본 연구는 복도 및 휴게홀의 이용행동을 15분 간격으로 조사하여 특정 세부장소(예: 휴게홀의 창쪽, 벽 쪽, 혹은 바닥 등)의 점유형태 및 분포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특정 공간의 이용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온도와 습도, 채광 및 조명등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시설 운영목표 등의 행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보다 세부적인 공간 구성계획을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거주자의 공간점유형태와 공간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 시설 행정에 관한 후속연구의 진행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의 5개 무료전문요양시설만을 대상으로 관찰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전국의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참고문헌

- 권순정(2002). 노인요양시설의 위계적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34, 96-105.

- 김동규(1998).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공용공간 배치유형과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동규, 이특구(1997). 유료노인거주시설의 공용공간 배치유형과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 복지시설학회지, 3(5), 29-39.
- 류승수(2001). 치매전문요양시설에서의 치료적 건축환경계획을 위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수진(1999). 노인요양시설 주거부문 공유공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대용(1998). 치매노인의 배회공간에 대한 건축계획적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금석(2002).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노인의 생활행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8(9), 95-104.
- 이민아, 유옥순(2004).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42, 62-69.
- 이응숙(2003).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진주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승자(2000). 노인요양시설의 거주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http://www.elder.or.kr>(노인복지시설협회)
- (2004년 6월 22일 접수, 2004년 8월 19일 채택)